

여성동아

08 AUGUST
2013

Woman
Donga



엄지원·건축가 오영욱
8개월째 열애 중

심은하, 초등학생
학부모로 보낸 6개월

최원석 회장, 신장 때 준
아들 잃은 심경

꽃보다 할배·진짜 사나이·힐링 캠프
대박 프로는 시작부터 달랐다

'만화를 찢고 나온 남자'
최진혁 의외의 면모

집중
기획

톱스타처럼 결혼하고 싶다
비용 뽑아보니...

이효리 이상순 결혼 임박!
시부모의 예비 며느리 사랑

2013 상반기 브랜드별
판매 1위 화장품은?

몸과 마음 치유하는
Healing Beauty

김혜수 스타일 따라잡기

힘 불끈!
닭 한 마리 보양식

TV 속 인기 상품
카탈로그

독자 선물 대잔치

50만원 상당 두피 모발
관리 이용권·비데
아이홍삼·다이어트 식품...

전 독자 경기도미술관
특별전 관람권

재활용 나무판으로 만든 불박이 수납장과 대형 아일랜드 테이블이 눈길을 끄는 주방. 테이블 아래쪽에 세라믹 재질의 작은 손잡이를 불규칙하게 배열했다. 아일랜드 식탁 위에는 다양한 유리 화병과 저장용 유리병을 이용해 만든 팬던트 조명으로 공간에 리듬감을 더했다.

재활용품 활용해 꾸민 매력적인 공간 디자이너 뤼졸의 유쾌한 로프트에 가다

실내장식가이자 디자이너, 팝아티스트인 카를로스 뤼졸이 프랑스 랭스에 자리한 낡고 좁은 4개의 스튜디오를 수직으로 연결해 개성 만점 로프트를 선보였다. 디자이너 특유의 유쾌함과 대담함이 믹스돼 로큰롤 같은 경쾌함이 전해진다.

기획 · 강현숙 기자 취재 · Aurélie des Robert | 글 · Agnès Benoit | 사진 · Sam Brewski |
인테리어 건축가 Carlos Pujol | www.carlosjr.com | carlos@carlosjr.com | 번역 · 정혜승(skyblue book studio)



1 주방에는 마룻바닥을 재활용해 제작한 커다란 식탁을 놓았다. 철로 프레임 만들어 깔끔하게 마감했으며, 이등이 쉽도록 바퀴를 달았다.
2 통유리를 바닥에 칸 사무실에 앉아 있는 로프트의 주인인 카를로스 뤼졸.
3 로프트의 거실 벽에 박아 고정시킨 회색 말판을 따라 오르며 사무실 공간으로 이어진다. 기둥처럼 쌓은 수백 권의 만화책과 줄줄이 늘어선 빈티지 오토바이가 보는 이를 미소 짓게 만든다.
4 미닫이 수납장 전면에 부착한 거울 덕분에 공간이 넓게 느껴지는 1층 현관.



카를로스 뤼졸은 다양한 영역에서 실력을 발휘하고 있는 멀티플레이어다. 광고계에서 경력을 쌓은 그는 책의 삽화를 그리고, 바르셀로나의 로프트와 파리 스튜디오의 내부 장식 인테리어를 담당했으며, 만화 · 그래픽아트 · 재활용 등 다방면에서 활약하고 있다.

프랑스 랭스에 자리한 뤼졸의 로프트는 예전에 건초 창고로 사용된 곳으로 낡고 좁은 4개의 스튜디오를 수직으로 연결해 완성했다. 방 위로 거실이 자리하고, 거실 계단을 따라 오르면 사무실 공간이 이어진다. 지붕에는 하루 종일 햇빛이 충분히 들도록 큰 채광창을 냈다. 집 안의 계단을 오르며 만나는 색색의 일곱 문 역시 흥미롭다. 오래된 잡지의 흑백 페이지를 떼어 벽면 한가득 붙인 뒤 각각의 문 크기가 서로 다르게 보이도록 만든 것. 툭툭 튀는 문의 컬러와 기사의 흑백 면이 묘한 대조를 이루며 호기심을 자아낸다. 계단에는 색건본표를 대형으로 제작해 붙였는데, 회색 말판 아래 초콜릿 빛깔에서 시작해 노랑, 오렌지, 빨강, 초록, 파랑, 보랏빛까지 색이 이어지며 공간을 구분하는 역할을 한다.

재활용의 아름다움

좁은 4층 공간이다 보니 하중을 견딜 거대한 기둥이 필요했고, 구조상 기둥이 거실 한복판을 통과할 수밖에 없었다. 이 난관에 부딪친 뤼졸은 만화책을 활용해 공간을 유쾌하게 변신시켰다. 중고 만화책 3백여 권을 구입해 층층이 쌓아 기둥을 가린 것. 거실 상단에는 안경테를 재활용해 만들었다. 짝이 맞지 않거나 버려진 안경테를 층층이 또는 겹겹이 걸어 장식했는데, 다양한 렌즈가 서로 겹쳐지며 빛을 반사해 공간에 색다른 재미를 더한다. 집 안 곳곳에 생긴 자투리 공간에는 오래된 나무 껍질이나 박스를 놓고 책과 추억 어린 물건들, 장식품들을 정리해 장식 효과를 냈다. 재활용의 미학이 매력적으로 드러나는 곳은 주방이다. 커다란 식탁 상판은 마룻바닥을 뜯어 만들고 식탁 옆 직육면체 모양의 대형 아일랜드 테이블은 이케아의 시스템 키친 모듈을 기본 골격으로 옆에 핑크빛이 감도는 낮은 널빤지를 붙이고 세라믹 손잡이를 불규칙적으로 달아 만들었다.



다양한 디자인의 소파와 의자를 모아 독특하게 연출한 거실. 전경, 벽면 등세에 주워온 나무 껍질과 칸막이 상자를 넣은 뒤 독특한 오브제와 기념품을 장식해 개성 있게 꾸몄다. 한 안경테를 모아 만든 개성 넘치는 상들리에가 눈길을 끈다.



1 오렌지 컬러의 대형 테이블이 생동감을 주는 사무실. 투명 유리잔을 활용한 상들리에를 달아 포인트를 줬다.
 2 블랙 & 화이트의 컬러 매치가 돋보이는 욕실. 독특한 디자인의 타일을 붙여 아티스틱한 감성을 더했다.
 3 스트라이프 오브제로 포인트를 준 사무실. 한쪽 벽면에는 디자인 시안을 붙여 장식 효과를 냈다.
 4 실내에 들어서면 계단을 오르며 만나는 색색의 일곱 문이 눈길을 끈다. 오래된 잡지의 흑백 페이지를 떼어 벽면 가득 붙인 뒤 각각의 문 크기가 서로 다르게 보이도록 만들었다. 계단에는 RAL 색견본표를 대형으로 제작해 붙여 장식 효과를 냈다.
 5 침실은 화이트 컬러 침대와 수납장을 놓아 심플하게 연출했다.
 6 밤이 되면 명암 구조가 극명해져 그래픽적인 장면을 연출하는 로프트 외관.